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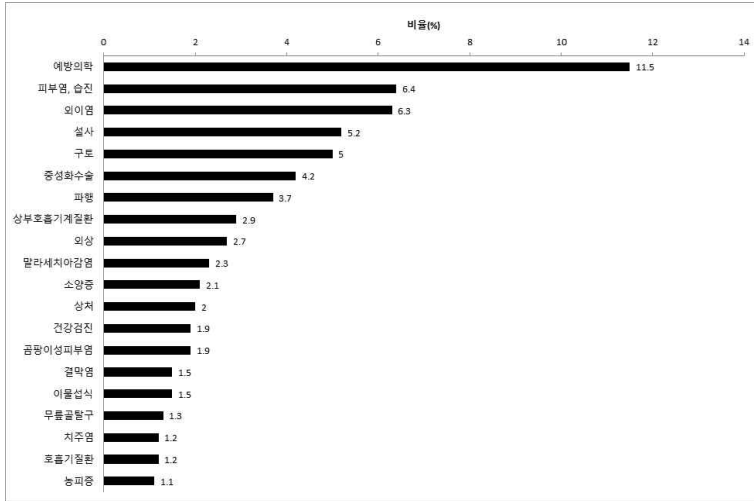
		<h1>보도자료</h1>			
<p>2018년 11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월 13일 11시부터 보도 가능</p>					
배포일시	2018. 11. 13.(총 13쪽)	담당부서	가축질병방역과		
담당과장	류재규 과장 (063-238-7220)	담당자	도윤정 연구관 (063-238-7222)		

동물병원 진료 기록 기반 반려견 내원 이유 분석 - 3살 이하 소화기 질환, 4살 이상 피부 질환 주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동물병원 진료 기록(전자차트)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나이와 품종에 따른 내원 이유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 예방 접종 외에 진단 결과를 보면 피부염·습진(6.4%)으로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외이염¹⁾(6.3%), 설사(5.2%), 구토(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 20위권>

1) 반려견에서 흔히 일어나는 귀병으로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임.(출처: Merck and the Merck Veterinary Manual)

- 나이별로 보면 3살 이하의 설사와 구토 발생 비율이 높아 파보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소화기 질환의 예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려견 진료 모습>

- 피부염·습진, 외이염 발생 비율이 높은 4살 이상은 피부 질환 발병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 7살 이상은 심장질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 피질기능항진증 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발생이 크게 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진단 결과를 품종별로 보면 몰티즈와 푸들은 외이염, 시츄와 요크셔 테리어는 피부염과 습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츄 품종은 다른 반려견 품종에 비해 안구 질환이 많았습니다²⁾.

- 이번 조사는 국내 동물병원(11곳)의 반려견 진료 기록 1만 5,53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조사 대상 반려견의 평균 나이는 4.8살이었으며, 1살~3살이 전체의 53%였습니다. 10살 이상도 17.3%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반려견은 20살이었습니다.

- 많이 내원한 품종으로는 몰티즈(25.2%), 푸들(15.5%), 포메라니안(8.8%), 시츄(7.4%), 믹스견³⁾(7.2%), 요크셔 테리어(6.8%), 치와와(4%) 순이었고, 믹스견을 제외한 6개 품종의 반려견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의 나이별·품종별 주요 질병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2)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각막을 자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됨.(출처: Christmas, R.E., 1992.)

3) 부견과 모견의 품종이 다름.


○ 반려견도 나이에 따른 주요 발생 질병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질병을 보다 이른 시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창범 원장은 “동물병원을 찾는 원인을 분석해 반려견의 건강관리와 추가 연구에 활용한다면 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나이와 품종 특성에 맞게 보다 세심하게 돌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반려견 진료 기록은 ‘동물병원의 진료 기록 정보 활용’에 동의한 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차트 전문 회사의 협조로 진행했습니다.

○ 아울러,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어제이(PeerJ)’에 실렸습니다.

【참고자료】 반려견 나이·품종별 동물병원 내원 이유 분석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과 도윤정 수의연구관(☎ 063-238-7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반려견 나이·품종별 동물병원 내원 이유 분석

《 주 요 내 용 》

◆ (배경) 동물병원 내원 이유 분석으로 나이대별, 품종별 주요 발생질환 파악, 기초자료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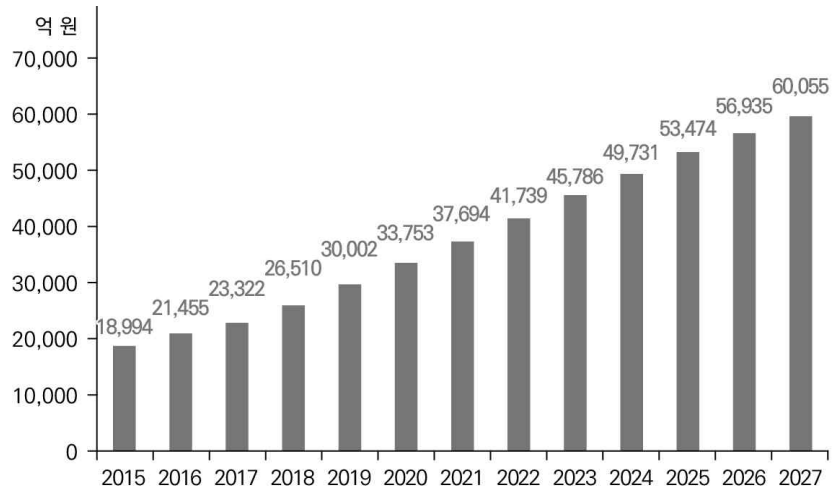
- 국외 수의학분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기초로 한 반려동물 질병 발생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 노령화 과정 중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특정 질병 발생 양상은 나이와 품종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 (주요 결과) 나이대별, 품종별 동물병원 내원 이유

- 3살 이하에서는 예방의학을 제외하고 설사, 구토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파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이물 섭취 등 소화기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
- 4살 이후는 피부염·습진, 외이염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피부 질환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초기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함
- 7살 이후는 심장질환, 신부전, 유선종양,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등의 진행성, 퇴행성 질환 발생이 증가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사 추진 배경과 필요성

-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과 관련 시장 성장(출처: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에서 개 632만 마리, 고양이 243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2017년 기준)
 - 연관 산업 규모: 2017년 2조 3,322억 원 → 2027년 6조 원 이상 전망
 - 2014년 기준 1조 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하고 있음.
 - 수의서비스 분야는 6,551억 원으로 2014년 기준 약 42% 차지



<그림1>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출처: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의학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음
- 국외 수의학 분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기초로 한 폐사의 원인, 질병 발생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 품종별 수명, 수명과 체중의 관계, 주요 폐사 원인, 신체 기관별 질병 발생률 등에 관해 분석 보고됨
- 노령화 과정 중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특정 질병 발생 양상은 나이와 품종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 동물병원 내원에 관한 주된 이유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관련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성 있는 분야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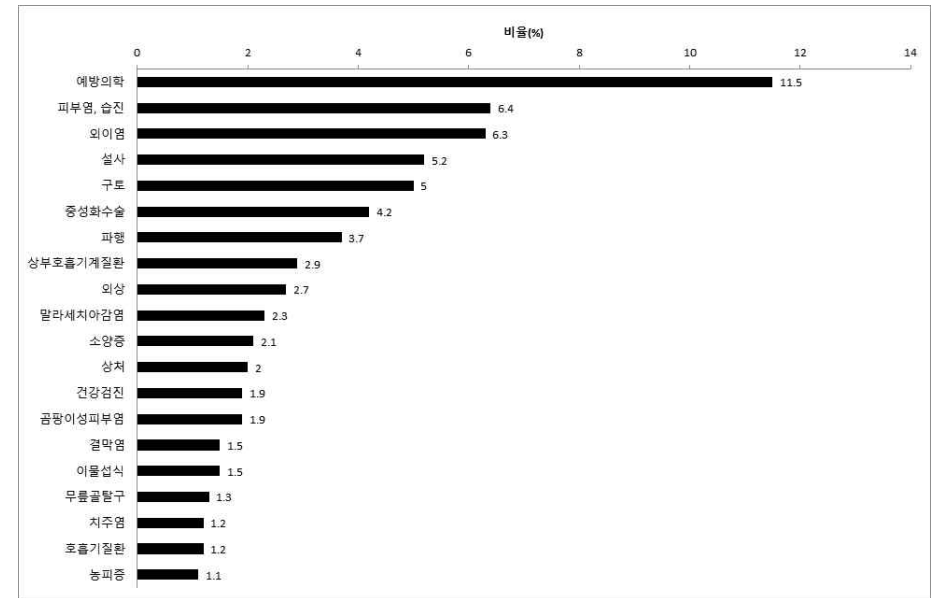
□ 분석 개요

- 대상: 서울과 전주 지역 11개 동물병원의 2016년 전자차트 진료 내역
- 조사 방법: 동물병원 정보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동물병원 대상으로 전자차트 회사(I사)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반려견 11,085마리의 진료내역(품종, 나이, 증상 등) 15,531건 분석

□ 주요 결과

○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주요 원인 분석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질병 관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예방백신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내·외부기생충 예방을 위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 데이터의 11.5%를 차지했으며, 피부염·습진(6.4%), 외이염(6.3%), 설사(5.2%), 구토(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2>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주요 원인 20위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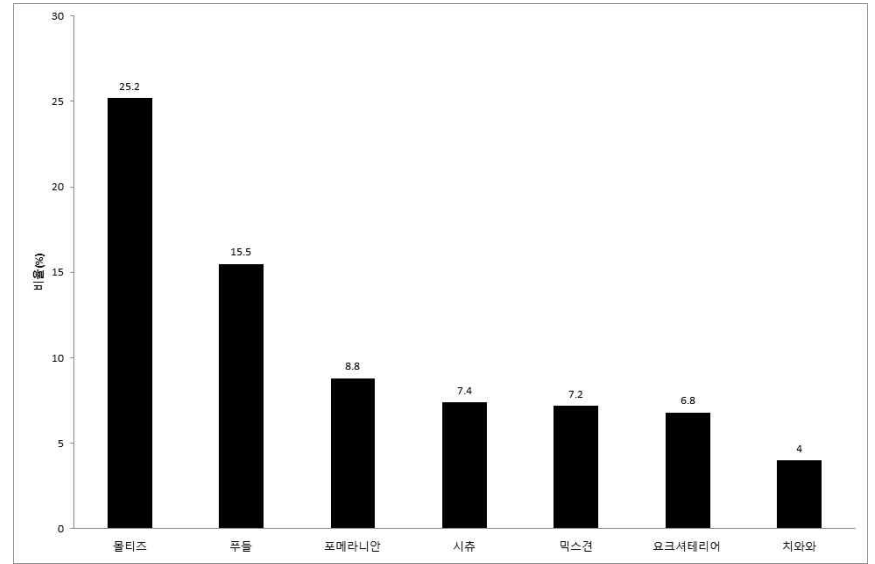
<표1>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의 나이대별 상위 20위권내 내원 이유 현황

* 내원 이유(나이대별 비율%)

순위	1 살 미만	1-3 살	4-6 살	7-9 살	10-12 살	13-15 살	16 살 이상	총 계
1	예방의학 (39)	예방의학 (16.7)	외이염 (8.8)	피부염, 습진 (9.2)	피부염, 습진 (7.4)	피부염, 습진 (6.2)	피부염, 습진 (5.6)	예방의학 (11.5)
2	설사 (11.8)	중성화수술 (6.6)	피부염, 습진 (8.5)	외이염 (8.2)	외이염 (5.6)	외이염 (5.3)	외이염 (3.8)	피부염, 습진 (6.4)
3	구토 (5.1)	설사 (6.3)	예방의학 (7.7)	파행 (4.5)	파행 (4.5)	심장질환 (5.3)	구토 (3.8)	외이염 (6.3)
4	건강검진 (4.4)	구토 (5.9)	설사 (4.6)	설사 (4.5)	구토 (3.9)	파행 (3.5)	상부호흡기계질환 (3.8)	설사 (5.2)
5	상부호흡기계질환 (3.7)	외이염 (5.5)	구토 (4.5)	예방의학 (4.1)	상부호흡기계질환 (3.7)	상부호흡기계질환 (3.5)	신부전 (3.8)	구토 (5)
6	파행 (2.9)	피부염, 습진 (5.1)	파행 (3.2)	구토 (3.9)	건강검진 (3.3)	호흡기질환 (3)	파행 (3.5)	중성화수술 (4.2)
7	식욕부진 (2.9)	파행 (3.6)	상처 (2.9)	치주염 (3.1)	설사 (3.1)	건강검진 (3)	설사 (3.2)	파행 (3.7)
8	내부기생충감염 (2.9)	상부호흡기계질환 (3.2)	소양증 (2.9)	말라세치아 감염 (2.8)	예방의학 (2.8)	구토 (2.8)	심장질환 (2.9)	상부호흡기계질환 (2.9)
9	외상 (2.2)	외상 (3.1)	말라세치아 감염 (2.7)	외상 (2.8)	말라세치아 감염 (2.4)	예방의학 (2.6)	예방의학 (2.7)	외상 (2.7)
10	무기력 (2.2)	말라세치아 감염 (2.2)	외상 (2.5)	건강검진 (2.3)	치주염 (2.4)	설사 (2.4)	식욕부진 (2.7)	말라세치아 감염 (2.3)
11	피부염, 습진 (1.5)	소양증 (2)	곰팡이성 피부염 (2.3)	상부호흡기계질환 (2.1)	심장질환 (2.2)	신부전 (2.4)	유선 종양 (2.7)	소양증 (2.1)
12	상처 (1.5)	곰팡이성 피부염 (2)	중성화수술 (2.2)	소양증 (2.1)	곰팡이성 피부염 (2.1)	농피증 (2.1)	호흡기질환 (2.4)	상처 (2)
13	파보장염 (1.5)	상처 (1.8)	치주염 (2)	농피증 (1.9)	소양증 (2)	안와 질환 (2.1)	안락사 (2.4)	건강검진 (1.9)
14	코로나 장염 (1.5)	이물섭식 (1.8)	건강검진 (1.7)	곰팡이성 피부염 (1.9)	중성화수술 (1.8)	부신피질기능저하증 (2.1)	건강검진 (2.1)	곰팡이성 피부염 (1.9)
15	외이염 (0.7)	무릎골 탈구 (1.4)	결막염 (1.7)	결막염 (1.9)	상처 (1.8)	치주염 (2)	부신피질기능저하증 (2.1)	결막염 (1.5)
16	말라세치아 감염 (0.7)	건강검진 (1.7)	무릎골 탈구 (1.7)	무릎 탈구 (1.7)	유선 종양 (1.8)	식욕부진 (2)	상처 (1.8)	이물섭식 (1.5)
17	소양증 (0.7)	결막염 (1.4)	상부호흡기계질환 (1.5)	상처 (1.6)	각막염 (1.6)	유선 종양 (2)	안와 질환 (1.8)	무릎골 탈구 (1.3)
18	무릎골 탈구 (0.7)	발치 (1.1)	이물섭식 (1.5)	중성화수술 (1.5)	안와 질환 (1.5)	말라세치아 감염 (1.9)	외상 (1.5)	치주염 (1.2)
19	호흡기질환 (0.7)	임신 (1.1)	임신 (1.4)	이물섭식 (1.3)	호흡기질환 (1.4)	발작 (1.7)	소양증 (1.5)	호흡기질환 (1.2)
20	농피증 (0.7)	귀 소양증 (1)	귀 소양증 (1.3)	종괴 /결절 (1.2)	농피증 (1.4)	소양증 (1.5)	곰팡이성 피부염 (1.5)	농피증 (1.1)
21	기타 (12.5)	기타 (26.7)	기타 (34.3)	기타 (37.5)	기타 (43.5)	기타 (42.7)	기타 (44.5)	기타 (34.1)

○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의 주요 품종

- 조사대상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의 주요 품종 조사 결과, 몰티즈 (2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푸들(15.5%), 포메라니안 (8.8%), 시츄(7.4%), 믹스견(7.2%), 요크셔테리어(6.8%), 치와와(4.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3>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반려견 주요 품종

□ 주요 질병

- 피부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외부적 자극, 화상, 알러젠, 외상, 감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호르몬 이상, 소화기계 이상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피부염 증상을 발견한 경우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치료가 동반되어야 함
- 외이염: 반려견에서 흔히 일어나는 귓병으로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임. 주로 귀가 늘어서 있거나 외이도에 털이 많은 경우 발생하기 쉬움
- 심장질환: 심장에 기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하며 질병의 발생 시기

에 따라 선천적 이상·후천적 이상, 감염 여부에 따라 감염성·비감염성, 임상적인 단계에 따라 우심부전, 좌심부전, 양측심부전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구조적 이상이나 기형(심장중격결손 등), 전기전도도의 장애(심실 세동 등) 등이 있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기능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신부전: 신장의 기능이상으로 인해 혈중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질병을 말하며, 원인과 진행 시기에 따라 급성신부전, 만성 신부전으로 분류. 만성 신부전의 경우 75% 이상의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 전까지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임
- 유선종양: 유선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종양임. 평균 약 50.9%가 악성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함
- 부신피질기능항진증: 일명 쿠싱 증후군(Cushing's syndrome)이라고도 불리며, 혈중 부신피질호르몬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전신적인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질병임. 주기적인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

* 출처: Merck and the Merck Veterinary Manual (www.merckvetmanual.com)

<묻고 답하기>

질문 1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

- 반려견도 사람처럼 나이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파악한다면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이른 시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소형 품종의 반려견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의 나이대별, 품종별 질병 현황을 분석한다면, 향후 반려견의 의료복지, 수의학 연구, 그리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이 연구 결과의 나이 분포, 품종 분포는 기존 자료, 또는 해외의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의 나이 분포는 미국의 경우 1살 이하, 또는 4~7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Lund 등, 1999), 영국의 경우 1살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나이가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내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Sánchez-Vizcaino 등, 2017).
-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물병원에 내원 기록 중 1살에서 3살 사이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4에서 6살에 17.3%로 급격히 내원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 2017년 한국펫사료협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몰티즈가 21.2%, 시츄 11.7%, 푸들 11.4%, 믹스견 6.1%, 요크셔테리어 5.2%, 포메라니안 5.1%로, 이번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위권 안에 드는 품종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질문 3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의 주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 국내 반려견의 경우 소형품종과 장모종(털이 긴 품종) 분포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초기 증상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워 질병이 진행된 후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부 질환은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 피부염의 경우 나이가 주요한 소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부분의 나이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 피부염 증상을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병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 이 결과는 국내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순 없으나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전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므로, 도시에서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의 질병 동향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의 경우 협력 병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질병 현황 분석이 진행돼 왔습니다.
- 국내의 경우도 동물병원 간 자료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대표할 수 있는 자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5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실제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견의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반려견 나이대별, 품종별 주요 내원 이유에 관해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반려견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사람과 같이 나이와 품종에 따른 주요 발생 질병을 파악한다면,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견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동물병원 내원에 관한 주된 이유를 조사함으로써 현재 관련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성 있는 분야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 이번 연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보호자는 반려견의 나이에 따른 주의 질환을 인지하고 예방관리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이 증가되는 노령성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검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항목, 시기를 설정해 건강검진프로그램 작성에도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산업면에서는 질병 검진 장비, 진단키트, 치료약물 개발, 처방사료 개발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이번 연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3살 이하에서는 예방 접종, 기생충 예방 등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질병으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 질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증상에 관련된 질병의 예방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살 이하의 어린 강아지의 경우 파보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장내 기생충 감염 등의 소화기 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이 시기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 접종과 구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4살 이후부터는 피부염·습진과 외이염이 동물병원을 내원하는 가장 많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사 또는 구토의 경우 보호자가 인지하기 쉬운 흔한 증상으로 4살 이후 나이가 들어도 내원 이유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염의 경우 나이가 주요한 소인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나이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

으므로, 현재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병들을 미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밖에도 노령화될수록 증가하는 진행성, 퇴행성 질환 중 심장질환은 7살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했고, 신부전, 부신피질기능항진증, 유선종양의 경우 4살 이상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나이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여, 이들 질병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